

# 투표 독려 현수막 공해… 광주·전남 곳곳 ‘몸살’

지방선거 후보들 개정 선거법 악용 이름 알리기

일부 후보는 수백장…‘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으로 광주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독려 차원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대부분 예비후보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일부 후보는 많게는 수 백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후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나붙고 있는 현수막은 행정부상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며 후보 간 현수막을 훼손하면서 과잉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6일 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선거운동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잠깐만요, 투표하고 가실까요?’ ‘투표하면 광주가 변합니다’ 등 공익적인 문구를 담고 있지만, 출마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처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나붙고 있는 것은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가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되고 최근 등장하는 현수막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무공천 방침에 따라 이름을 알리려는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대부분 내걸었다는 점이 문제다.

무공천으로 경쟁이 치열해졌고,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지를 모르게 됐기 때문에 투표 독려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다

는 것이다.

눈에 잘 띠는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기 위한 후보 간 경쟁도 치열하고, 상대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말썽도 잦다.

목포경찰은 6일 “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독려 현수막을 훼손한 40대 응의자 A(48)씨를 불법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과 30

일 새벽 공범과 함께 칼 등을 사용해 한 후보의 투표 참여를 독려 현수막 40여 개를 젖은 혐의다. 경찰은 A씨와 다른 목포시장 후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굽지 않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법상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며,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삼척서도 북한제 추정 무인기 발견

6일 강원도 삼척의 한 아산에서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

이 무인항공기는 지난 3일 주민의 신고로 수색 끝에 발견됐다.

/연합뉴스

## 무인기 영공 침범 방호망 허점 추궁

### 박주선·백군기 의원 대정부질문

국회의 지난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백군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북한 무인항공기(UAV)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항공 방호망의 허점을 추궁했다.

박주선 의원은 “1년에 30조원 이상 월세를 사용하는 안보 태세가 이렇게 엉망인지 미쳐 몰랐다”면서 “국민 분노와 불안만 가

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도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이 무인기는 북한 열병식에서 미리 공개됐는데도 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건 규모가 큰 무인공격기였는데, 이것은 요격할 수 있다”면서 “소형비행체가 나타난 지 십수년이 됐는데도 미리 대책 강구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보다 3134억원이 늘었다. 신장률은 1.6배로 전국 평균 1.9배에 못미쳤다. 도세가 급증한 것은 남북신도시 개발과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취득세 증가와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군세 신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전국 산단의 19%가 높아 있는 전남의 특성상 불경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된 이유다.

시군세는 8305억원으로 10년 전 5171억

원보다 3134억원이 늘었다. 신장률은 1.6배로 전국 평균 1.9배에 못미쳤다. 도세가 급

증한 것은 남북신도시 개발과 여수세계박

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광주전

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취득세 증가와 2010년 지방소비세 신

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군세 신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전국 산단의 19%가 높아 있는 전남의 특

성상 불경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

된 이유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원보다 3134억원이 늘었다. 신장률은 1.6배

로 전국 평균 1.9배에 못미쳤다. 도세가 급

증한 것은 남북신도시 개발과 여수세계박

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광주전

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취득세 증가와 2010년 지방소비세 신

설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시군세 신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전국 산단의 19%가 높아 있는 전남의 특

성상 불경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

된 이유다.

시군세는 8305억원으로 10년 전 5171억

대통령 과학장학금 대학생 416명

광주 5명·전남은 0명

### 새정치 윤관석 의원 지적

학기술원 82명(12.5%), 포항공대 27명(5.8%), 연세대 8명(2.4%), 고려대 6명(1.9%), 성균관대 5명(1.3%) 순이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과기원 학부과정 학생 3명과 전남대 2명뿐이다.

두 학교를 합쳐도 전체 학생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며 전남은 1명도 없었다.

지원금액도 서울대가 11억6000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해 전남대는 800만원에 그쳤으며 부산대 1700만원, 전북대 1300만원보다도 적었다.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靑 홈피에 ‘규제개혁 신문고’ 설치

### 14일 이내 수용여부 회신

청와대는 6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신문고 배너를 클릭하면 글쓰기창이 나오고 여기에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는 학관 규제 담당 공무원의 질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글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

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관련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관부처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속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은 전해드린다.

이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

/복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道稅 신장을 전국 최고

작년 7617억… 10년새 2.3배

전남도는 6일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조5922억원을 거둬들이 10년 전인 2004년(8452억원)보다 1.9배(7470억원)나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세입 중 도세는 지난해 7617억원으로 2004년(3281억원)보다 4363억원이 증가해 신장을 2.3배(전국 시도 평균 1.6배)로 전국 최고 신장을 기록했다.

시군세는 8305억원으로 10년 전 5171억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m <sup>2</sup> ]	용도	비고
【아파트】				
2013타경 14979	1	여수시 구봉산길 52, 3동 5층 505호【국동, 중앙아파트】 42.84㎡	아파트	32,000,000원 32,000,000원
2013타경 15354	1	순천시 해룡면 정선내가길 141, 202동 14층 10405호【금당2차우미아파트】 59.83㎡	아파트	100,000,000원 100,000,000원
2013타경 15415	1	여수시 미평동 592-3 대평면 2동 3층 301호【5층 5.5m】	아파트	64,000,000원 64,000,000원
2013타경 16043	1	광양시 태안간 1, 104동 4층 407호【태안동, 동, 광아아파트】 59.22㎡	아파트	25,400,000원 25,400,000원
【아파트】				
2013타경 16371	1	여수시 신월로 642-1, 5층 501호【국동, 국동세화포커스】 165.49㎡	아파트	229,000,000원 229,000,000원
2	2	여수시 덕충동 9-10, 505동 1층 103호【국동, 뇌태정】 76.72㎡	아파트	142,000,000원 142,000,000원
3	3	동소 1층 104호【덕충동, 뇌태정】 80.62㎡	아파트	149,000,000원 149,000,000원
4	4	동소 2층 204호【덕충동, 뇌태정】 80.62㎡	아파트	150,000,000원 150,000,000원
5	5	동소 3층 303호【덕충동, 뇌태정】 76.72㎡	아파트	143,000,000원 143,000,000원
6	6	동소 4층 401호【덕충동, 뇌태정】 80.41㎡	아파트	150,000,000원 150,000,000원
7	7	동소 4층 402호【덕충동, 뇌태정】 76.72㎡	아파트	143,000,000원 143,000,000원
8	8	동소 4층 403호【덕충동, 뇌태정】 76.72㎡	아파트	143,000,000원 143,000,000원
9	9	동소 4층 404호【덕충동, 뇌태정】 80.62㎡	아파트	150,000,000원 150,000,000원